**뉴질랜드 안보정보국 사례 연구**

이러한 사례 연구는 [뉴질랜드의 안보 위협 환경 | 뉴질랜드 안보정보국](https://www.nzsis.govt.nz/our-work/new-zealands-security-threat-environment)에서 가져왔습니다. 이 사례 연구에서 말하는 '외국 정부'는 **뉴질랜드 이외의 모든 국가**를 의미합니다. 이 용어는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.

**뉴질랜드 안보정보국(NZSIS)의 정의**에 의하면 외국의 간섭이란 외국 정부가 기만적이거나 부패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뉴질랜드 국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을 방해 또는 교란하려는 의도로 종종 대리인을 통해 행하는 행위입니다. 정상적인 외교 활동, 로비 활동 및 영향력을 얻기 위한 다른 순수한 공개적 노력은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
**사례 연구 1**  
2023년, 어느 외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대리인을 통해 한 지방자치단체에 접촉해 특정 종교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지역 행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 외국 정부는 그 단체가 자국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 이주민의 '의지에 반하는'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.

**사례 연구 2**NZSIS는 다수의 뉴질랜드 학생 그룹(어느 외국의 해외 거주자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음)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외국 외교관을 알고 있습니다. 이들 외교관은 선출된 학생 그룹 운영진이 그 외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이런 유대관계를 이용해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들은 학계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학생 그룹과의 관계를 숨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외국 간섭의 한 예입니다. 그들은 이러한 그룹과 그 구성원들이 해당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제하려 하며 반체제 인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.

**사례 연구 3**소수의 외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특정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. 종종 이들 정부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서 그 정부가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. 이 정보는 비자를 취소한다거나 아직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2023년에 한 외국 정부는 본국 가족을 방문하려는 뉴질랜드인의 비자 신청을 그 정부가 싫어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.